

산업 리포트: 피지컬 AI와 의료 현장

2026 상반기 리서치 요약 · 실습용 가상 보고서

■ 개요

피지컬 AI(로봇·센서와 결합한 인공지능)의 의료 도입이 시범 단계를 지나 확산 초입에 들어섰다. 본 리포트는 국내외 병원 87곳의 도입 사례와 시장 전망을 정리했다.

■ 시장 규모

글로벌 의료 피지컬 AI 시장은 2026년 184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31% 성장해 2030년 5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. 국내 시장은 2026년 7,400억 원 규모다.

■ 주요 발견

- 물류·이송 로봇이 도입의 관문이다. 도입 병원의 74%가 검체·약제 이송부터 시작했고, 간호 인력의 이동 시간이 하루 평균 47분 감소했다.
- 수술 보조 로봇의 적용 과가 확대되고 있다. 정형외과 중심에서 흉부외과·이비인후과로 확산, 국내 수술 로봇 활용 건수는 전년 대비 22% 증가했다.
- 재활 분야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됐다. 웨어러블 보행 재활 로봇 사용군의 회복 기간이 대조군 대비 평균 18% 짧았다.
- 병상 모니터링 AI가 야간 낙상 사고를 31% 줄였다. 다만 오경보율(11%)이 간호 피로를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.
- 최대 장벽은 기기 가격이 아니라 수가와 책임 소재다. 병원 의사결정자의 63%가 '보험 수가 불확실성'을 1순위 장벽으로 꼽았다.

■ 규제·제도 동향

식약처는 2026년 3월 AI 의료기기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고, 보건복지부는 이송 로봇의 시범 수가 사업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.

■ 시사점

공급 기업에는 '기기 판매'보다 '운영 구독' 모델이, 병원에는 물류→모니터링→임상 보조의 단계적 도입이 권고된다.

■ 조사 개요

조사 대상: 국내외 병원 87곳, 공급 기업 24곳 / 기간: 2026년 1~5월
/ 발행: 헬스테크리서치(가상)

(본 문서는 도서 실습용으로 제작한 가상 리포트입니다.)